

시내버스 운전자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의 요인

이 경 종

최근 서울시내의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내버스의 큰 차체, 승객운송 업무의 특성과 안내원이 없이 일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논문은 1989년 8월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에 실린 것을 요약한 것이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화이트칼라'에서 어느정도 진행되었는데, 비행사, 치과 의사, 과학자 등에 관한 것이었다. '블루칼라'에서는 간수, 석유산업근로자 등에서 있었고 버스운전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연구는 여러 개가 있었으며 Rosenman과 Friedman은 시내운전자가 시외운전자보다 관상동맥질환이 많다고 하였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 결근율, 이직률, 중병, 당직 중 상해, 보험수혜 등에서의 증가가 버스운전자에서 많은 것은 직업성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버스운전자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 교통소음, 교통혼잡, 기기의 진동, 공해(일산화탄소, 연등), 작업조건 통제의 난점, 동료와의 격리 등이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시카고 시내버스차고 10개소의 모든 교대근

무자에게 설문조사로 시행하였다. 총 2,221명 중 912명이 완전한 대답을 보였는데 각 차고 별로 26~72%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분석을 고려하였을 때 798명만이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이 표본 중 성, 연령, 인종, 근무경력을 전체 시내버스 운전자와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없었다.

설문조사는 근무중 스트레스, 생활도중 스트레스가 컸던 사건, coping(스트레스가 있을때 많이 먹는 등의 스트레스 해소행위), 건강, 정신과적 증상, 강건한 성격, 체격조건, 흡연 및 음주 등의 습관, 사회적 지지, 사회적 유동성(social assets), 인구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각 항목들에 대하여 "절대 안생긴다"부터 "하루에도 여러번 있다"까지 6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승객이 돈(토큰)을 안넣고 지나간다", "교대가 잘 안 이루어진다", "라디오가 고장이다" 등의 질문에 그와 같이 대답하게 하였다. 이러한 답변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승객문제, 불량한 시설, 승객의 위험, 시간지연, 동료나 감독자의 비협조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질병의 경중도는 '흡킨스 증상 항목표'를 사용하였는데 신체적인 불편감 호소, 불안-신경질, 우울-분노의 3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질병률이 높고 스트레스가 많은 집단과 질병률이 낮고 스트레스가 많은 집단을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가를 판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불안신경증을 제외하고 스트레스와 질병의 정준 상관계수는 0.46이었다. 판별분석결과 퇴행성 coping이 가장 판별력이 높았고 그 다음이 체격, 완고한 성격 순으로 나타났다. 판별의 정확도는 70%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높은 스트레스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운전자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퇴행성 coping 행위를 적게 한다.

둘째, 체계적으로 스트레스에 잘 견딘다.

셋째, 성격이 강건하다.

여기서 일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질병과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가족의 지지가 버스운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지 않았던 것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특히 스트레스와 질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설문하였음이 지적된다. 그리고 후향성 연구이므로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이 많았던 집단이 더 기억을 잘하여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